



# 높낮이 다른 28개 전각 만물상 보는 듯... 정교 웅장, 탄성 절로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원한 기와를 올린 영통사 전경. 복원을 시작한지 6년만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높낮이를 달리한 28동의 전각이 옛 영화를 고스란히 재현한 듯 하다.



주법당인 보광원과 5층석탑.



대각국사의 부도가 모셔진 경선원.



천년 세월 영통사터를 지켜온 당간지주.

## 천태종 北 영통사에 단청재료 전달

2003년 10월 27일 북한 개성 영통사 전각에 올려질 기와 10만장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이후 올 3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40만장의 기와와 부자재가 북측에 전달됐다. 지원단체인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기와 지원에 이어 4월 26일부터 26톤 분량의 단청재료를 3회에 걸쳐 보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4월 26일 오전 9시 파주 임진각을 출발해 남측의 마지막 관문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40분. 5km에 불과한 이곳을 4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서야 도착했다.  
 “어서 오시라오, 무원 스님!”  
 미리 마중 나온 김성철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사업국장과 정명철 개성직할시 대외사업협력국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 등 20여명의 환영단이 방북단을 반갑게 맞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이번이 7번째 방북이기에 한층 친숙하게 환영단과 인사한다. 무원 스님의 어설픈 북한 말투가 처음 방북

## 6년만에 모습 드러낸 영통사

한 방북단의 긴장감을 풀어준다.  
 “반갑습니다. 그 간 별 일 없었습니까?”  
 간단한 방북 수속을 마치고 개성으로 향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기어 저편으로 어릴 적 시골길을 달리던 추억의 버스가 교차했다. 장문 너머로 보이는 북녘의 들녘은 평화로웠다.  
 휴전선에서 개성시내까지의 거리는 겨우 10km. 개성은 직할시다운 규모를 갖췄지만, 콘크리트 담과 곳곳에 배치된 군인, 남루한 행색의 주민들은 ‘회색도시’의 모습이었다.  
 방북단에게는 공식 일정이 영통사 복원현장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왼쪽 두번째)과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김성철 국장이 단청재료 전달서를 교환하고 있다.

을 방문하기에 앞서 개성시내 유적지 참관의 기회가 주어졌다. 맨 처음 찾은 곳은 고려문화재인 성군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고려역사기념 박물관. 첫 방북에 기대를 가졌던 고성 보성사 주지 설해 스님은 여성 안내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전격난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박물관을 둘러보다 내내 찻집했던 속가슴의 안타까움을 내뻐는다. “후, 북한이 이 정도로 어려웠던가.”

이날 일정의 마지막은 영통사 복원현장이었다. 굵게 바뀌어 버린 빗줄기 사이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영통사, 방북단은 저마다 탄성을 내질렀다. 28동의 전각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1998년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 고고학부의 발굴작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복원은 활기를 띠게 됐고, 불사가 시작된 지 6년여만에 제모습을 드러냈다. 북한내 최고의 건축기술을 지닌 김영웅 총감독이 책임을 맡아 시멘트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려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열반처로 유명한 영통사는 그동안 북측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동·서 3층석탑만이 행랑하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지주 주법당인 보

## 南·北 문화교류 상징으로 우뚝

바꿈 되었다. 영통사 원형으로는 천태종 창종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부도를 모신 경선원이 오관산(五觀山)을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영통사 복원지역 총부지는 6만 평방미터, 전각의 총건평만도 3천4백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천태종의 대북교류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분단 반세기 가 지나서야 남북이 함께 영통사를 복원하는 통일불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천태종은 앞으로 2차례의 단청재료 지원을 비롯해 의천스님의 열반일인 11월 16일경 낙성과 함께 남과 북,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북측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김성철 국장은 “남북이 하나되어 손을 맞잡는 날, 영통사는 남북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북단은 이튿날인 27일 개풍에 위치한 공민왕릉과 왕건릉, 선조교를 둘러본 뒤 마지막 일정인 안화사를 찾았다. 주지 승찬 스님을 비롯해 2명의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고 했다. 설해 스님의

집전으로 대웅전에서 합동법회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법회가 끝나고 차로 돌아가는 방북단의 뒷모습에서 분단의 아픔이 느껴졌다.  
 개성=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천태종 방북 이모저모

○…휴전선에서 개성시내까지의 거리는 11km다. 서울과 인천의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11km를 가는 시간은 50분이 걸렸다.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비무장지대 태극기와 인공기가 걸려있는 거리는 겨우 1km. 도로는 울퉁불퉁하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과 북의 상황은 멀고 먼 이웃을 실감케 한다.

○…북한측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방북단을 굉장히 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같은날 방북한 토지개발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팀과도 대조적인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천태종 방북단은 방북기간 동안 개성시내와 주요 유적지 참관을 할 수 있었지만, 토지개발공사 개발팀은 공업지구에서의 공식 일정 외에는 숙소에 갇혀사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개성시내에 위치한 산은 물론 외곽에 위치한 산도 대부분 벌거숭이 산이다. 주민들이 땀으로 쓰기 위해 베어낸 상처다. 개성을 벗어나 개풍으로 접어들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나무가 남아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과 나무를 벨 수 없도록 지정된 특정지역 뿐이다. 개성을 대표하는 송악산도 산 자체가 돌산이어서 나무가 많지 않은데다가 키가 3m를 넘는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특별 기획안내 (호객 유류선으로 중국여행을...)**

○출발일: 2004년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 홍곡사 / 영암사 / 잠산사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야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미의 성지 - 티벳 / 낙산대불 8일 169만원
6. 북경 / 소림사 / 백마사 / 용문석굴 5일 79만원

○요급포함내역(공동여행)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현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건비용, 현지공회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및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발생법회를 최만단 마라도에서...**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급 포함내역 및 특선>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가, 퍼시픽랜드 (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설해(설해초밭 및 유지원)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 최대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광 → 동양 최대의 사할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장방죽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추암'에서 삼림욕!!! → '조평말 체험' 또는 '동굴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광 → 점심공양 → '동일불사리대입'교편사' 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